

돼지의 법정 전염병  
퇴치는 가능한가?



김 용 희  
〈가축위생연구소·수의학박사〉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며 그 만연을 방지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크게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정하여 법(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전염성 질병을 가축의 법정 전염병이라 칭한다.

돼지의 법정전염병은 국내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질병으로 돼지콜레라, 돼지단독, 특소플라즈마병, 유행성뇌염, 돼지전염성위장염 등 5종이며 외국으로부터 침입이 우려되는 것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돈수포병, 돼지가성광견병, 수포성구내염, 돼지땃센병, 돈두등 6종이다.

외국에서 침입이 우려되는 질병은 발생지역의 생축 및 축산물물의 수입금지 조치와 도입돈에 대한 위생조건제시 및 수입검역의 철저로 침입을 방지케 하고 있으나, 국내발생질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약 접종과 검진검색, 살처분 및 소독 등 효과적인 방역관리로서 대처하고 있으며 이의 발생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국가에서 역점을 두고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돼지콜레라"와 "돼지전염성위장염"이다.

이들 질병은 정부나 양돈농가에서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이 매년 되풀이되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들 전염병의 퇴치는 가능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가능하다. 선진국 여러나라에서 근절할 실례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의 퇴치에는 치밀한 장기계획과 우수한 백신의 개발 및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돼지콜레라의 발생을 근절시킨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란드 등이며 독일, 불란서, 화란 및 동남아 여러나라와 남미 여러나라에서는 여전히 발생이 많다.

미국의 돼지콜레라 박멸 대책의 실례를 보면, 1961년에 전 미국 돼지콜레라박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박멸계획을 수립하여 근절 선언이 있기까지는 장장 17년의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1978년 1월을 기하여 마침내 돼지콜레

라가 없는 지역임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후 미국은 15년간 콜레라 발생이 전혀 없다.

전 미국 돼지콜레라 박멸에 관한 특별법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Kennedy의 서명에 의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의 내용은 국가차원의 박멸 계획을 수립하고 농무장관이 필요시 돼지콜레라 강독의 주(州)간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돼지콜레라 박멸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1962년에 미농무성(USDA), 미국 가축위생위원회(USAHA) 및 질병전람 기구인 축산 보호기구(LCI)가 상호 협조아래 국가계획의 실행단계를 설정하여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돼지이동규제, 폐사돈에 대한 보상금 지불, 중요정보 수집 및 활용과 대농민교육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설정된 돼지콜레라 박멸실행 단계는 4 단계로 구분하여 제 1단계(준비단계)는 질병 발생보고 잔반열처리, 돼지이동규제, 검문·검색, 시체 소독 및 생물학적제제(백신) 사용단속을 위하여 ①주와 군에 돼지콜레라 박멸 위원회설치 ②신속한 질병보고체계 확립 ③보고된 유사 질병의 확진 ④표준 진단법을 통한 각종 보고서를 통일케 하고 있다.

제 2 단계(질병감소단계)는 ①확진이 내려질 때까지 의심돈의 검역실시 및 감염돈의 검역계속 ②검역돈군의 이동금지 ③시장구입돈의 검색 ④양돈 매매자에 의한 돼지의 출처 및 관련 사항기록을 보전케 한다.

제 3 단계(발생근절단계)는 ①보상금 지불에 의한 감염돈제거 ②감염 및 접촉돈의 살처분, 감염지역내의 검색, 시장구입시 접촉된 돈군의 검색을 위한 운영방안 ③감염 폐사체 및 기구

의 처리 및 소독기준을 마련한다.

제 4 단계(재발 방어단계)는 ①질병발생이 없는 주의 1년간 보고및 검색의 적극적 활동 ②생독백신 사용금지 및 사독백신 접종시 보고 ③수입돈의 21일간 격리 보호조치 등이다.

비록 주정부에 따라 실행단계는 다소 달랐지만 대체로 1961~1965년에는 준비단계이었고, 1966~1969년은 질병 감소 및 근절단계, 1970~1977년에는 재발 방어단계를 거쳐 1978년 드디어 미국 전 지역이 돼지콜레라 부재(미발생) 지역임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들의 박멸대책이 성공하게 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보면 첫째, 철저한 경제 분석을 기초로 장기계획을 설정하였다. 둘째, 유사기관인 USDA, USAHA, LCI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상호협조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효과를 배가하였다. 셋째, 각종보고체계(보고, 진단, 교육, 검색등)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 운영되었다. 넷째, 연구조사자들의 원인체규명, 예방약및 예방약 접종법 개발, 조기진단법 개발 등이 뒷받침이 되어 이를 기초로 모든 박멸 계획의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었다. 다섯째,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의 깊은 관심, 각 분야 지도자들과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등 모두가 일치 단결된 단호한 결심의 발로이다. 여섯째,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다. 일곱째, 우수한 백신을 포함한 생물학적제제의 생산 공급이 초기 방역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선진 여러나라의 박멸대책을 거울삼아 과감한 박멸대책이 베풀어질 때 우리나라에서의 돼지콜레라를 비롯한 돼지의 법정전염병의 근절을 기대하여 본다.